Ⅵ 결론

과거에는 IFRS17 도입에 따른 보험회사의 부채 증가로 인해 자본 부족을 염려하였으나 도입 첫해인 지금은 그 양상이 달라졌다. 제도 도입 준비 10년 동안 보험회사의 자본은 지속적으로 확충되었고, 제도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다양한 연착륙 방안이 시행되었다. 또한 저금리 시대에서 벗어나 인플레이션에 따른 금리 상승 국면에 들어서 보험회사의 부채 증가 부담이 완화되었다. 이제는 IFRS17 도입에 따른 자본 부족보다는 보험계약마진을 통한 이익 확보 및 자본 관리를 고민해야 되는 상황으로 변화하였다.

제도 도입 준비 초기에는 보험회사가 '매출 중심에서 가치 중심의 경영'으로 변화될 것으로 예상하였다. 과거에는 보험회사가 매출 확대를 위해 저축성보험을 주로 판매하였지만, 수년 전부터는 보험계약마진 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보장성보험을 중심으로 판매하고 있다. 앞으로는 '매출 확대가 곧 가치 경영'이 되는 상황으로 변화하게 될 것이다. 설문조사(Ⅱ장) 및 상품별 영향평가(Ⅲ장) 등을 고려하면 보험계약마진이 높은 보장성보험, 특히 건강보험 위주의 영업 전략이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생명·손해보험회사 업권 내 그리고 업권 간 경쟁이 현재보다 더 치열해져 동일한 보장에 대해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을 제시하거나 타사보다 다양한 보장을 제공할 수 있는 회사가 상품 판매에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회사별 또는 업권별로 차별성 있는 상품을 판매하기보다는 수익성 높은 특정 상품 위주의 판매 경쟁이 심화된다면 보험회사의 수익성이 예상보다 감소하여 손익변동성이 증가할 수 있다.

서론에서 단기실적 위주의 과당경쟁, 불건전 영업행위 지속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변화 가능성을 살펴보려 하였다. 하지만 IFRS17 도입 이후 대다수 보험회사가 평가지표로 보험계약마진을 적용함에 따라 수익성 높은 상품에 대한 판매 경쟁이 오히려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예상을 바탕으로 영업활동에 대해 직접적인 통제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보험회사도 있었다.

다만, 일부 보험회사의 경우 보험계약마진을 직접 활용하기보다 보험위험뿐만 아니라 금리 등 시장위험을 고려한 '조정 보험계약마진'을 평가지표로 활용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

경우 리스크에 기반을 둔 가치경영은 일정부분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가평가 기반의 새로운 보험회계 제도는 보험산업 자본 및 성과의 변동성을 증폭시킬 수 있으므로, 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시장규율기능 제고를 위한 모니터링·관리·제도보완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향후 연구과제로서 IFRS17 도입에 따른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활용한 성과지표에 대한 연구를 제시한다. 2023년에는 IFRS17 기준의 재무제표가 작성되므로 손익과 자본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를 통해 보험회사 성과지표의 방향성 제시를 목표로 한다.